

성공사례 (Ⅳ)

제4회 전국 한우능력 평가대회가 지난 1999년 12월 9 ~ 10일까지, 이틀간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소재 하일라 콘도에서 있었던 바, 이번 능력평가대회에서 종합 1위를 차지한 오륜농장(이병국 사장(37세), 부인 이연일씨(38세) 사이에 1남 1녀를 뒀)을 취재하게 되었다.

- 충남 보령, 오륜농장편 -

가던 날이 장날이라고 이틀 전부터 내린 눈이 쌓여 있어 본인은 기차로 대전역까지 도착한 후 보령 축협 지도계의 도움을 받아 오륜농장에 들릴 수 있었다.

오륜농장은 멀리 충청남도 보령시 청라면 향천리 242-2번지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알맞은 크기의 산으로 아담하게 둘러싸여 있는 아름다운 농장



농장입구에서 포즈를 취한 이병국사장

이었다.

이병국사장은 이날도 유명세를 탄 이유로 천주제 일사료에서 개최하는 세미나에 강사로 출강하여 강의의 마치고 잠시후면 돌아온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다.

그 사이에 필자는 농장을 한번 돌아보았다.

농장 입구에 들어서시는 순간 느낌은 조용한 절터와 같은 고요속에 둘러싸여 있었으나 농장은 고요속의 외침을 연상시켰다. 농장 속에는 한우는 물론 돼지, 개, 사슴 등 많은 종류의 가축이 있었다.

잠시 후 이병국 사장이 미끄러운 눈길을 열심히 달려오는 것이 눈에 띄었다. 인사를 나눈 뒤 들이는 농장을 이곳 저곳 둘러보고 나서 추위를 피하여 안으로 들어가 취재를 하게 되었다.

원래 오륜농장은 이병국 사장의 부친이신 이성수 씨께서 일궈낸 농장이라야 옳을 듯 싶다. 1980년대 한우 경진대회장에 심사위원으로 대회장에 가보면 반드시 이성수 사장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

하셨으며, 본인도 많은 두수를 대회에 출품시켜 여러번 입상하는 경력을 가지신 말 그대로 진정한 한우맨이었다.

지금도 수일에 한번씩 아들이 못 미더워서가 아니라 농장에 관심을 가지고 둘러 이곳 저곳 둘러보며 미진한 부분은 고쳐주시는 자상한 성격의 소유자이다.

농장의 규모는 전체 15,000평으로 크지도 작지도 않은 규모의 농장으로써 이 중 축사가 880평, 돈사가 1,350평, 축분발효처리장 169평(약 900톤 처리 능력)의 중규모 농장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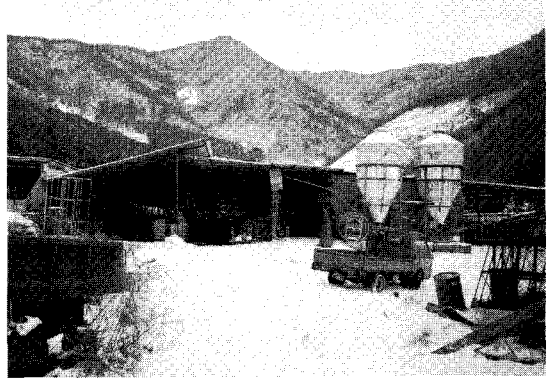
한우는 120여두, 돼지 160(1,600여두)여두, 사슴(레드디어 10두), 개 30여두를 사육하고 있었으며, 최근에는 강아지 사육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잠시 강아지 얘기를 하여보면, 이 오륜농장에서 분양하는 강아지의 견사호(죽보)는 "만세보령"이 따라다닌다고 한다. 진도견이 주종을 이루고 있었으나 도벨만을 비롯하여 유명한 품종이 다수 있었다.

1999년에 '전국 밀레니엄 대회'가 있었는데 이 대회에서 오륜농장에서 출품한 강아지가 BIS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기도 하였다고 귀띔한다.

한우는 번식우 60여두, 비육우 40여두(자체생산분), 송아지 25두의 "크지 않은 규모에서 어떻게 전국 종합우승을 차지하게 되었는가?"는 질문에 이병국 사장은 "특별한 사양관리는 없으나, 우사 30평 규모에 4두씩 사육하고 있어 사양환경이 우수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라고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답변한다.

"그렇다면, 사양관리에 특별한 노하우가 있느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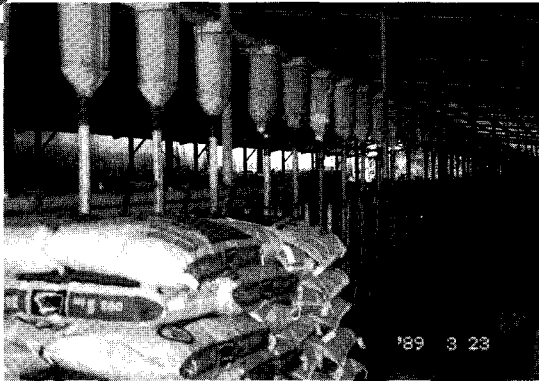
농장 전경

는 되질문에 한마디로 "없다"고 답한 이 사장은 "사료 선택이 좋았던 것 같다"라며, "번식우는 C사료에서 나오는 고기소번식우사료를, 육성단계는 마블 280을, 큰소비육 전기는 마블 520을, 큰소비육 후기는 마블 610을 급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르 세부적으로 말하면 "육성단계는 체중의 1.5수준으로 제한 급여하나 조사료는 무제한 급여하며, 번식단계에서는 수정단계에서 고기소임신우사료를 제한급여(자동급이기로 2회/일)하고, 사료량은 체중의 1%수준을 유지합니다. 이렇게 하다보니 번식율도 72% 이상을 유지할 수 있으며, 수정은 축협을 통하여 실시하고 철저한 계획교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하여 생산된 소를 전국 한우능력 평가대회에 3회때부터 참여하여 3회에는 장려상을 수상하였으나, 4회에서는 종합우승이라는 횡재를 거머쥐게 되어 농림부장관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충남 예산에 있는 예산농업전문대학 축산학과를 83년도에 졸업하고 이듬해인 4월 3일부터 아버님으로부터 본격적으로 가업을 이어받아 실시하게 된 이병국 사장은 가축사육이 취미라며, 평소의 생활에서도 특별한 것은 없고, 그저 가축이 좋아서 하고



번식우사에 설치된 자동급이기

있다고 말한다.

필자가 분위기를 바꿔보기 위해서 “특별한 취미가 있느냐?”는 질문에 “없습니다. 그러나, 뭐든지 남이 하는 만큼은 합니다. 그리고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못하는 것은 뭐냐?”는 질문에 “없다. 특별한 것도 없고 그렇다고 부족한 것도 없다”라고 대답하는 과정에서 충청도 고유의 기질이 엿보이는 것 같았다.

돈분은 해양관련 관청의 허가를 받아 해양투기를 하고 있으며, 우분은 유기질 비료를 만들어 과수,

화훼농가에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의 계획은 “현재상태를 유지하며, 가족들의 건강과 우리 전체 축산인들이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라고 양축농가들에게도 새해 인사를 빼놓지 않았다.

그리고, “제5회 대회에 출품예정인 KPN-209로 생산된 송아지(99년 8 ~ 11월중 생산) 17두를 잘 육성하여 다음 대회에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일입니다. 17두중 5두는 인근 한우개량단지에서 구입한 송아지입니다만 17두중 5두를 선발하여 비육을 시켜 대회에 출품시킬 예정입니다”

얼굴에서 풍기는 인상만큼이나 푸근하면서도 소박한 향후 계획을 말하는 이사장은 주변(시청, 축협 등)과의 유대관계도 좋은 원만한 성격의 소유자임을 한 관계자는 뒤에 귀뜸해 주었다.

또한 이사장은 충청남도 고품질 양돈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전형적인 복합영농가임을 알 수 있었다.

취재·편집 : 임병순



❖ 지동차 시대의 키-라이프 ❖

◇ 키센터 제대로 고르는 법 10가지

- ① 주인이 직접 정비하는 업소 선택할 것
 - ② 손님이 많은 업소 선택할 것
 - ③ 1·2급 정비자격증이 있는지 확인할 것
 - ④ 관할 지자체에 등록된 업소인가 확인할 것
 - ⑤ 정비를 받기 전에 상담 및 점검부터 한다
 - ⑥ 키센터 2곳이상에서 수리비를 비교한다
 - ⑦ 수리비가 싸다고 밀만 앞세우는 업소는 피할 것
 - ⑧ 순정부품 표시하는 홀로그램을 확인할 것
 - ⑨ 지동차 메뉴얼 북 등에 정비지식 습득할 것
 - ⑩ 차개부에 정비내용 기재할 것
- 이 외에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시민단체에 신고하는 것도 피애구제의 한 방법이다. (T : 02)2633-4177)